바로크적 특성으로 본 한국 사찰건축

-공주 마곡사를 대상으로-

A Study oA study on the Baroquely characteristics in Korean Temple Architecture

고 인 룡* , 동 재 욱**
Koh, In-Lyong Dong, Jae-Uk

Abstract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Baroquely characteristics in Korean Temple Architecture .(MA KOK-SA) We could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 visual freedom and floating in the arrangement of the temple buildings through segmenting the axis. Second, tension of variations in size, distance, and frame. Third, diverse sceneries provided by Sequential(dynamic) view points. Fourth, visual process and sharp contrast between horizontality and verticality, and unexpected scenery, etc

키워드 : 바로크적 특성 , 사찰건축 , 마곡사 , 동적시점 , 축 , 장면
keywords : Baroquely characteristics , Temple architecture , Ma Kok-Sa , sequential view point , Axis , Scene

I. 서론

우리나라 전통건축의 감상과 분석에는 많은 방법이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양식적 분류 특히 건축구성부의 형상이나 조형법등에의한 분류나 배치를 중심으로한 구분이 많다. 이로 인해 건축의 감상과 평가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인 지식과 상세의 관찰을 요구하게는데 이는 건축의 관찰과정이 종합적이고 즉감각적(卽感覺的)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상당한 거리를 두게 된다. 따라서 전통건축 연구자의 연구결과가 현대건축의 어휘에 익숙한 건축설계자나 감상자들과의 이해와 상당한 차이를 지닌다. 전통건축의 고유한 양식적 연구와 더불어 종합적으로 관찰, 수용되는 느낌에 대한 보다 익숙한 어휘나 방법을 통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구적 예술 양식의 분류개념으로서 제시되는 바로크적 특성을 우리나라 전통사찰건축인 "공주 마곡사(麻谷寺)"를 통해 발견 해석하여 시대나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건축적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동시에 서양에서의 과학적 발견과 근대적 자아인식과 함께 근대적 공간의지와 조형어휘로 전개되는 이 시기의 특성을 우리의 전통건축 해석의 틀로 삼아 그 유사한 특성을 발견해 보고자 한다.

II. 바로크적 특성과 연구대상고찰

1)건축의 바로크적 특성

많은 건축학자들은 건축의 양식적 특성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로 '고전주의'적 특성과 '바로크'적 특성으로 구분한다. 이는 전통적인 서양문명의 이분법적 구분(표 1) 즉 로고스(logos)적 특성과 파토스(pathos)적으로 양분하여 보는 관점에 근거한다.

표 1)서양문명의 이원성과 건축양식

구분	LOGOS적	PATHOS적
특성	-이성적,합리적 -관념적 -고전적(classic) -소박,형식중시 -추상적, 기하학적 표현	-감성적 비합리적 -경험적 -낭만적(Romatic) -감상적,내용중시 -자연주의,사실적
건 축	그리이스	로마
양 식	초기기독교,로마네스크	고딕
시 대	르네상스	바로크,로코코
구 분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건축을 중심으로한 예술양식구분에서는 그리이스문명과 르네상스의 문화적 양식이 전자에, 그리고 로마문명과 바로크문화가 후자에 각기 해당한다. 이러한 특징은 단지 서양문명적 특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중심으로 상호 대립되는 예술개념으로 분석 정리한 '하인리히 뵐플린'의 "미술사의 기초개념"[1] 에서 다섯 쌍의 대립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체계를 발전

* 정회원, 천안공업대학 건축과 부교수,
** 정회원, 천안공업대학 건축과 부교수

1)HEINRICH WöLFFLN , 『KUNSTGESCHICHTLICH GRUNDBEGRIFFE』 1915년 초판발행된 책으로 그후 뵐플린 사후에도 계속 재판되어1984년 17판을 내고 있는 책이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책은 이 17판을 번역한 하인리히 뵐플린 지음, 박지현 옮김 『미술사의 기초개념 -근세미술에 있어서의 양식 발전의 문제-』, 1995, 시공사 본이다.

그림1) 트래비분수,로마

시키고 있는데, 각 쌍의 개념에는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특징을 서로 대립시켜 설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그리이스 즉 고전주의 예술이 바로크로 나아가면서 엄격하고 정(靜)적인 예술관과 형식이 자유롭고 동(動)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음을 미술, 조각, 건축의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표 2)

.

표 2)뵐플린의 5쌍의 개념과 내용

르네상스		바로크	
특징	개념	개념	특질
-형태들의 명확한 구획 -분명한 윤곽선 -촉각적 -구축적	선적	회화적	-형태(사물을 넘나드는 운동감 -애매한 경계 -시각적 -인상적
-평면적 층구조 -면적구성 -정적시각(a point view) -정면시점	평면적	입체적	-중첩 -공간적 깊이감 -동적인 관찰점(sequential view) -동적시점
-구축적 -자체완결적 -명료한 법칙성(균제,안정감) -경직된 형태	폐쇄적	개방적	-비구축적 -관계성 -법칙성의 은폐 -긴장감,운동감 -유동적형태
-부분의 독립적, 독자성 -부분의 절대적 가치유지	다원적	통일적	-전체의 주제에 부분이 수렴 -부분의 절대적 가치 상실
-무조건적 명료함 -완벽한 아름다움 -정지한 형태를 통한 묘사 -명료하게 파악되어지는 형태와 공간	명료성	불명료성	-조건적 명료함 -모호함을 간직한 아름다움 -형태의 변화와 생성을 통한 묘사 -중첩을 통한 형태의 불명료화 -움직임을 통해 발견되는 애매한공간

이들 중 건축적 어휘로서 바로크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①견고한 형식과 형태를 움직이며, 부동(浮動)하며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해체

②제한 없고 무한한 인상을 위한 한계나 윤곽을 없앰

③지속적, 정체적 객관적 존재(공간)을 생성(生成),기능으로, 주관적 인상에 따른 상대적존재(공간)로 변화

④공간의 깊이를 강조하기 위해 전경(前景)을 지나치게 크게처리, 배경(背景)은 과장된 원근법으로 급격히 축소하여 움직이고 있는 공간을 조성

⑤전개되는 공간이 관찰자와 무관한 시점으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자신에게 종속,의존하며 관찰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느낌을 조성

⑥정면이나 측면 같은 단적인 전망(view)보다는 우연적, 즉흥적,순간적 광경(scenㄷ)을 조성, 영화적 즉흥성

⑦폐쇄적인 구도나 화면의 한계를 무시하고 경계를 무시하고 돌출되는 동적 요소(그림1)

⑧무리한 오버랩(overlap), 투시도법에 의한 크기의 과도한 격차

⑨소재의 불완전성과 예기치 못한 모티브, 디테일의 무의미성, 추함, 디테일의 불균형,

⑩장대하며 수평적 요소를 기둥이나 벽기둥으로 묶어 통일적 이미지를 창출

이와 같은 건축의 바로크적 특징들을 한국전통건축인 "마곡사"의 예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분석대상 -마곡사-

마곡사(麻谷寺)[2]는 창건연대가 정확하지 않은 사찰로 백제 의자왕 2년(642)신라의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고려명종 2년(1172) 보조국사가 중건하였고, 임진왜란때 폐사되었다가 조선 효종 원년(1650) 각순대사가 중창하여 현재에 이르는 사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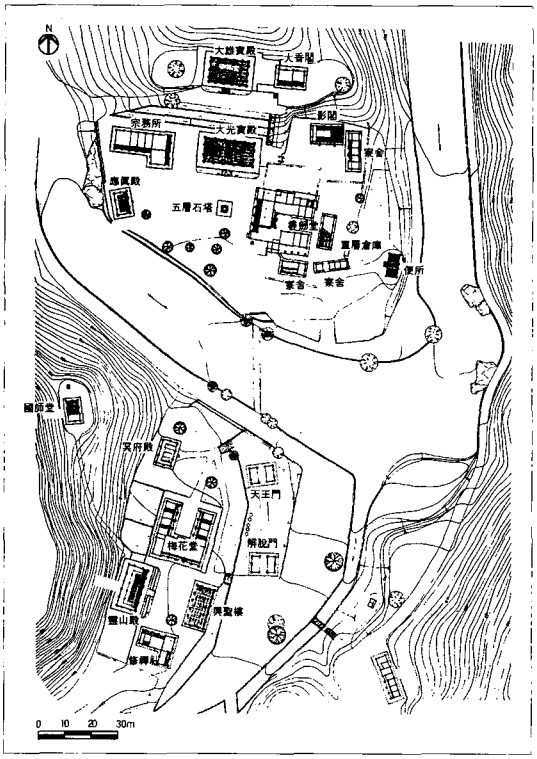

그림 2) 마곡사 배치도(문화재관리국도면)

2) 보조국사가 중건시 구경하는 사람들이 골짜기에 가득 모여들어 마치 삼밭의 삼(麻)이 서 있는 것과 같다 하여 마곡사라 하였다고 한다.

사찰의 배치는 경내를 흐르는 개울로 양분되는데 개울 남쪽에는 천왕문,해탈문, 영산전,강당, 명부전,국사당이 있고 북쪽에는 대웅보전, 대광보전, 오층석탑, 응진전,신검당등이 있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을 개울에 놓인 다리가 연결하여 주고 있는데 이중 남쪽의 영역이 먼저 조성된 후에 북측이 나중에 덧붙여져 오히려 중심영역으로 조성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3]

III. 마곡사의 바로크적 성격

1)축(軸)의 어긋남

건축의 배치에서 축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다. 건축물을 앉히기 위한 기준선으로서 집의 좌향과 정면 및 형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개의 경우 우리나라 전

그림 3)영산전 정면

통사찰의 경우 지형 축과 방위를 고려한 소위 풍수지리적 배치체계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마곡사의 경우도 안산과 주산을 잇는 자연축과 '영산전'[4]의 건축 축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북쪽의 건축의 축은 자연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자연스럽게 이 축을 조금씩 서측으로 밀어 어긋나는 분절된 축으로 구성 하였다. 즉 주요한 요소인 5층석탑과 대광보전 그리고 2층의 대웅보전은 서로 중앙의 축에 놓이도록 배치되지 않고 조금씩 서측으로 밀리며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정면에서 작도한 도면(그림4)을 보면 알 수 있다.

자연의 지형에 순응하여 엄격한 규칙을 깨는 것은 한국 전통건축의 여러 예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며 이는 건축의 바로크적 특성의 한 예이다. 특히 이러한 축의 분절로 인해 건축물은 절대적인 관계의 틀 속에 갇히지 않고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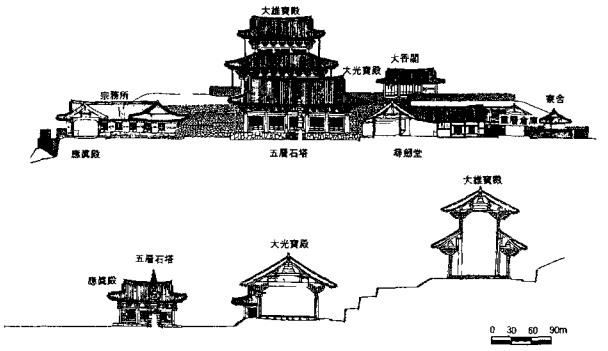

그림 4)마곡사북측 건물군의 입단면도

유로운 관계를 유지한다. 그 결과 시각적인 기대감을 유발시키며 관찰자로 하여금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게하고 오로지 움직임을 통해서만 건물의 관계를 파악하는 바로크건축의 '회화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

2)긴장감의 유발

고전적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수평적요소의 강조로 인한 안전성과 평온함이다. 바로 이 안정에서 오는 지루함을 깨고 긴장감을 불러일으켜 동적이며 자극적인 건축을 추구 한 것이 바로크건축이다. 마곡사의 경우 이러한 긴장감을 유발하는 요소로서 시각적 기대감의 조성과 함께 관찰자로하여금 불규칙한 호흡을 유발시키는 건물과 건물간의 거리의 완급조절과 시야의 개방과 차단효과를 들수 있다.

그림 5)해탈문

그림 6)천왕문

3) 그 근거로 김봉렬은 자연축과 진입로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사찰의 "뒤통수를 보며 길게 돌아가야하는 비효율적 어프로치"(「시대를 담는 그릇」 1999,이상건축)을 지적하고 있고, 임석재는 "천왕문과 해탈문의 순서가 바뀌어서 해탈문을 먼저 지나고 그 다음에 천왕문을 지나게 되어 있는 점"(「우리 옛 건축과 서양건축의 만남」 1999,대원사)을 들고 있다.

4) 마곡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효종2년(1651)에 지어졌으며 초선초기의 특징을 지닌 정면5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의 주심포계건축이다.

앞서 논한 축의 분절효과와 함께 시각적 기대감을 유발하며 이는 해탈문과 천왕문의 프래임효과를 통해 고조되도록 각 문의 중앙에 다음 건물또는 다리의 전체가 오지 않고 일부만을 보여주는 예를 통해 확인된다.

또다른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예는 각건물간의 거리를 통한 조정인데 진입으로부터 해탈문과 천왕문의 거리가 매우 가깝게 배체되어 관찰자의 호흡을 급하게 하고 급기야는 천왕문을 지나 나타나는 개울과 다리에서 그 위기감이 고조된다. 다리 끝에 있는 두그루의 나무는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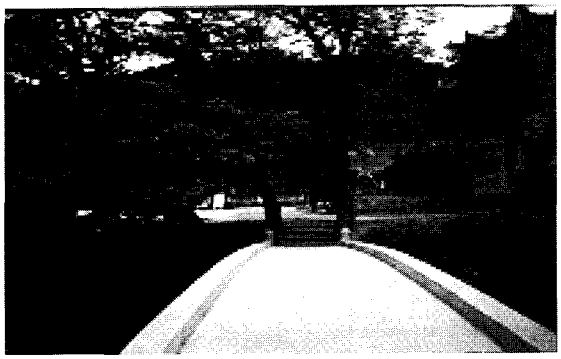

그림 7)다리와 나무

그림 8)대광보전 앞마당

부의 종점이며긴장감의 클라이맥스이다. 즉 보통의 사찰에서 누문의 역할 즉 가장 좁은 틈을 통해 불국의 극락정토인 밝고 넓은 대웅전 앞마당으로 이끄는 역할을 이 두 그루의 나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대광보전의 앞마당은 넓고 평온하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시각적 기대감과 긴장감이 유발되는 요소가 있는데. 대광보전의 뒤, 지붕위로 보이는 대웅보전과 여기로 접근하는 우측의 돌계단이다. 이와 같이 장면과 건축적 요소가 겹쳐 공간의 깊이감이 살아나며 동시에 긴장감을 유발한다. 이와같은 특성이 면적인 것이 아닌 공간적 양식으로 바로크적 특성을 지닌다.

3)동적 시점의 구성

바로크 건축의 특징으로 건축물의 공간이 하나의 시점에서 전체가 파악되지 않고 관찰자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의 구성이 있다 이와 함께 각각의 부분은 독립된 완결성으로 이해되기 보다 전체의 구성과 관계를 가지는 통일성이 존재하는 것 또한 특징으로 든다. 결국 건축공간들이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구조 속에서 역할을 하는 "영화" 같은 구성을 지니는 것인데 마곡사의 공간구성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해탈문→천왕문→다리→두그루의 나무 사이로 빠져나와 보게되는 장면(그림9) 인데 이곳에서 보면 "5층탑-대광보전-대웅보전이 중심축선상에 일직선으로놓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앞의 (그림4)의 입면에서 보았듯이 일직선이 아닌 서쪽으로 조금씩 밀려서 배치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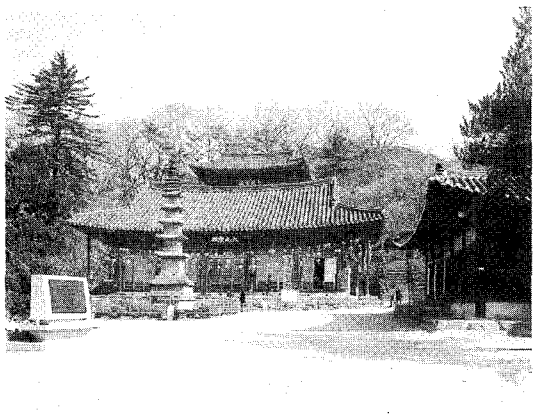

그림 9)대웅보전,대광보전,5층탑의 착시

그러나 관찰자의 시점을 고려하여 교묘하게 배치됨으로서 전체의 통일성[5]을 유치하면서 동시에 시점의 이동에 따른 다양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다.

대웅보전 뒤에 숨겨지듯 얹혀 있는 대광보전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건물로 마곡사공간의 종점이라할 수 있다. 대웅보전의 앞마당을 거닐어 우측으로 가면 어긋난 축으로 인해 대광보전의 모습이 전혀 다른 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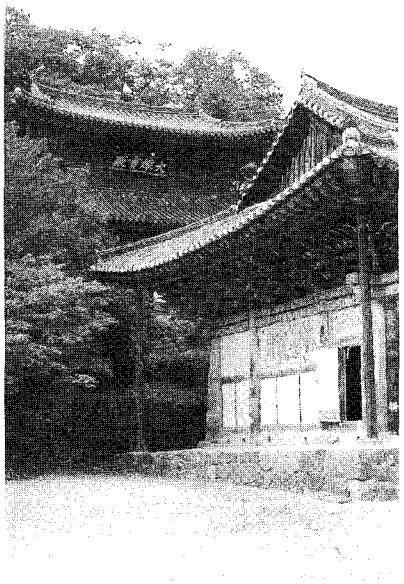

그림 10)대광보전 좌측에서본 대웅보전

5)통일을 원리로 하는 화엄사상이므로 화엄계사찰의 가람배치는 이 사상을 근간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요인이 사찰의 통일적구성의 계기로 작용한다.

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막상 대광보전으로 향해 올라가는 계단에서는 대광보전의 모습은 거이 보이지 않고 가리워지는 등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이도록 구성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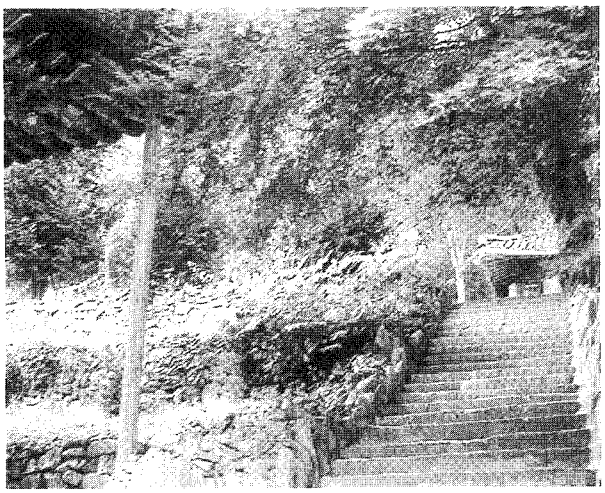

그림 11)대광보전 진입계단

어 있다.

4)과장된 규모 와 예기치 못한 전개

마곡사는 화엄계사찰로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대광보전이 주불전이다. 따라서 사찰 구성의 중심은 대광보전이다. 그러나 마곡사에는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를 같이 모시고 있고 부처의 위계로보면 석가모니불이 주불(主佛)로 이를 모시는 대웅보전이 동선(動線)의 종점으로 처리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또 위계적 차별성을 주기위해 중층으로 계획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의 단면도 참조)

그림12)대웅보전의 지붕

동시에 대웅보전으로 진입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웅보전의 옆을 돌아 들어가는 계단을 거쳐 지붕으로부터 서서히 들어나는 건물의 전체를 관찰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상당히 급한 경사의 앙각으로 대광보전을 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효과는 건물을 실제의 크기보다 더 크고 높게 보이도록 하는데 이러한 과도한 시각적 과장수법은 바로크적 특성이다.

물론 전면공지가 적은 것은 대웅보전의 시각적 여백이 건물바로 앞에 있지 않고 대광보전 앞마당에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결국 대웅전이 두 개가 있는 공간구성을 통해 전체적 공간구성의 통일성을 획득하고 있다. 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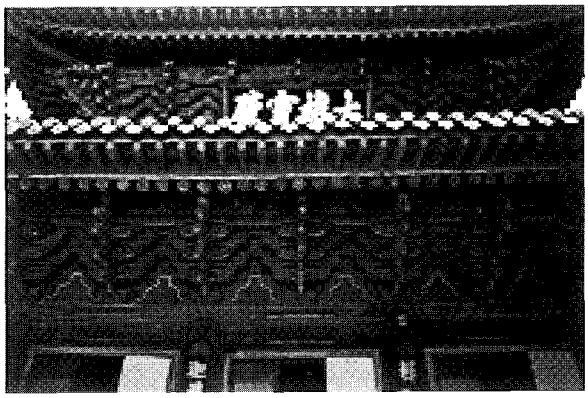

그림 13) 급한 경사로 보이는 대웅보전 현판

대웅보전의 경우 높은 기단과 건물의 폭이 좁은 2층구조로 수직성이 강조되 이는 추녀에 있는 활주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이외 대비되어 대광보전은 수평적으로 긴 특성[6]을 지닌 매우 구축적인 건물로 뒤의 대웅보전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다. 특히 대광보전의 내부구성은 전혀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물의 정면과 직각을 이룬 동측에 불단이 있고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이는 분절된 축들이 지니는 방향성을 무시한 것으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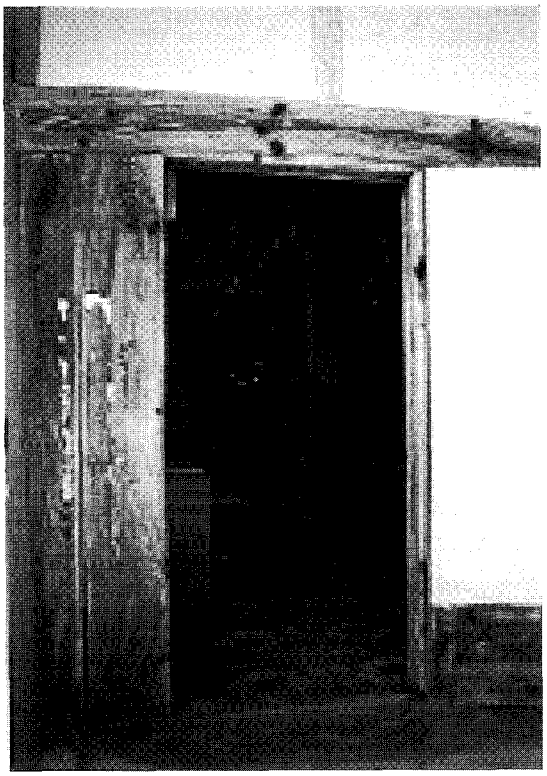

그림 14)스치는 장면으로서의 불상

6) 이러한 특성을 신영훈은 백제계건축(평지성)이라 부르는데 칸살이 넓고 기둥이 낮아 대지에 밀착된 수평적 모습을 지닌다

기치않은 장면을 연출한다. 이를 통해 대웅보전으로 유입하는 동선을 강화시키며, 동선상에서 얼핏스치는 장면(scenㄷ)적 효과를 자아내기도 한다. 이러한 효과는 영화기법 중 "몽따쥬기법"이라 불리우는 효과와 유사하며 결국 연속적 연결을 꾀어내며 주제의 암시를 주고 있다.

Ⅳ.결론

본 연구는 공주의 화엄계사찰인 마곡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통 사찰건축에서 발견되는 근대성의 요소로 '바로크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건축의 바로크적 특성은 안정되고 정적인 르네상스와 대비되는 동적이며 유동적인 특징을 지니며 마곡사의 경우 첫째, 가람배치에서의 축의 분절을 통한 시각적 자유와 부유(浮遊), 둘째 각 요소의 크기, 거리, 프레임등의 변화를 통한 긴장감. 셋째,동적인 시점 구성을 통한 다양한 장면, 넷째, 시각적 과정과 수평-수직성의 대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장면 등의 특징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상의 특성만으로 곧바로 한국건축이 바로크적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으나 현대적, 보편적 이론의 적용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전통건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의미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하인리히 뵐프린 저, 박지형 역,미술사의 기초개념, 시공사,1995
2. 김봉렬, 한국건축의 재발견1 시대를 담는 그릇, 이상건축,1999
3. 임석재, 우리 옛건축과 서양건축의 만남,대원사,1999,
4. 제르맹 바젱 저, 김미정 역, 바로크와 로코코 , 시공사, 1998
5. 아르놀트 하우저 저, 백낙청,반성완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2, 창작과 비평사,1999
6. E.M.번즈 외 저,손세호 역, 서양문명의 역사III -근대에서 산업혁명까지-, 소나무,1996
7. 宮元健次, 見る建築デザイン, 學藝出版社, 1998
, 1997.